

기 조 연 설

2015. 2. 12 (목) 14:05~14:15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 찬 우

I.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날이 었그제 같은데
봄이 벌써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신년 계획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시점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
인생의 자본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015년이라는 소중한 자본금이
뜻 깊게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위기의 한국금융에 대한 해법’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증권과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논의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주제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신
김홍범 학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I. 한국금융 진단

여러분,

한국금융의 위기에 대한 논의는
비단 최근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대내외 충격으로
경제에 이상 기류가 감지될 때마다
금융은 가장 취약한 분야의 하나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위기가 닥쳐오면
왜 항상 금융이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되어 온 것일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독자적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자금수요를 창출하는
고성장 경제에 의존하여
은행 중심의 자금중개기능에만
안주해 온 결과입니다.

둘째, **글로벌 금융흐름**에 뒤처져 있었습니다.

금융업권을 넘나들고
다른 산업과도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시너지를 모색하는
흐름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시장 개척**에 소홀했습니다.

혁신적인 상품 개발,
해외시장 진출 등
신규 수익원 개척을 위한 노력을
등한시해 왔습니다.

이제 한국금융은 달라져야 합니다.

실물경제의 그늘에 가려진
초라하고 나약한 금융에서 벗어나
그동안 가지 않은 길, 해보지 않은 것들을
찾아나서야 할 때입니다.

변화의 방향은 3C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창의를 나타내는 Creativity,
융합을 의미하는 Convergence,
그리고 도전을 상징하는 Challenge가 그것입니다.

창조적 금융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규제 개혁, IT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한편,

강화된 금융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금융이 외연을 넓혀나가고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선도해 나가는 수준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III. 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금융의 역할

여러분.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공을 만들 수 없다.”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금융 앞에 놓인 장애물들이
우리를 압도하면
자칫 위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앞서 상황을 주도해 나가면
오히려 기회가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는 바로
“창의(Creativity)가 살아 숨 쉬는 금융”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권의 낡고 보수적인 관행을 혁신하여
창의적인 금융인이 우대받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정부는 혁신성평가를 통해
아이디어와 기술을 평가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금융권에 확고히 정착시키고
임직원의 성과보상체제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융감독·검사 관행도
금융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역량도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이디어와 혁신적 기술을 가진
예비창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험자본의 형성-투자-회수-재투자에 이르는
단계별 정책지원 체계를 확립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사모펀드 제도개선,
기업 IPO와 M&A 활성화 등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습니다.

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두 번째 과제는
“금융 융합(Convergence)을 통한
시너지 창출”입니다.

‘제2단계 금융규제 개혁’을 통해
금융업권간 칸막이를 제거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따라
과도한 규제들을 과감히 축소하고,
행정지도와 모범규준을 정비해 왔습니다.

올해는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금융회사의 영업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업권간
영업제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이 추진될 것입니다.

다만, 규제개혁과 더불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공시와 소비자 교육 등 시장규율은 강화하여
규제개혁에 따른 부작용은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IT와 금융의 융합,
이른바 핀테크(Fintech)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시대적 흐름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위해
핀테크 생태계를 조성하고
체계적,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시장의 창의를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 패러다임 자체를
‘건건이 사전규제’ 하던 방식에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핀테크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펀드, 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도록 판매채널을 활성화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핀테크 혁명이 몰고 올 변화의 바람이
한국 금융산업에 순풍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혁신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과제는
“도전(Challenge)하는 금융문화의 확립”입니다.

지금 전세계는 혁신전쟁(Innovation War) 중입니다.
금융산업이 주도적으로
다른 분야와 융합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산업에도
신상품을 개발하고 신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가 정신’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정부도 새로운 금융상품을
적시에 개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금융회사와 독립적인 위치에서
고객이 필요한 금융상품을 찾아주는
‘독립투자자문업’ 제도를 도입하여
창의적 상품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보험업 신규진입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핀테크**와 **신상품**을 통해 강화된
금융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과감히 진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 금융회사들과
글로벌 국내기업들의
해외 동반진출을 유도하는 한편으로,
금융세일즈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FATF 의장국 수입 등
우리 금융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금융의 **국제화**를 위한
좋은 신호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과 방법을 통해
외국 금융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금융의 변화는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의 **가장 기본이 되는 미션**이
달성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이 작동되어야만
금융이 신뢰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와 융합, 그리고 도전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11월에 마련한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확립하겠습니다.

특히,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 역량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학생·청년층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서민 눈높이에 맞는 **금융교육**을
확대하는 작업도
빼놓지 않고 추진하겠습니다.

IV. 맺음 말씀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험난한 길에서도 앞으로 나아가고,
아무런 목적이 없는 사람은
순탄한 길에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19세기 영국의 사상가,
토머스 칼라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뚜렷한 비전을 향해 전진할 때,

한국금융 앞에 놓인 수많은 어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초 ‘범금융 대토론회’에서
우리 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금융권, 금융이용자와 함께 모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세미나, 토론회 등을 연속으로 개최하여
우리 금융의 미래에 대해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나라 재무/금융 분야의
학술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금융학회에서도
진지한 고민과 활발한 연구를 통해
한국 금융의 비전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심포지엄이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해 지혜를 모으는
그 출발점이 되고,

오늘의 고민과 여러분의 지혜가
한국금융의 재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줄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